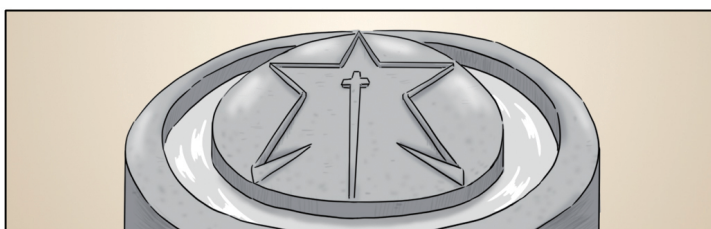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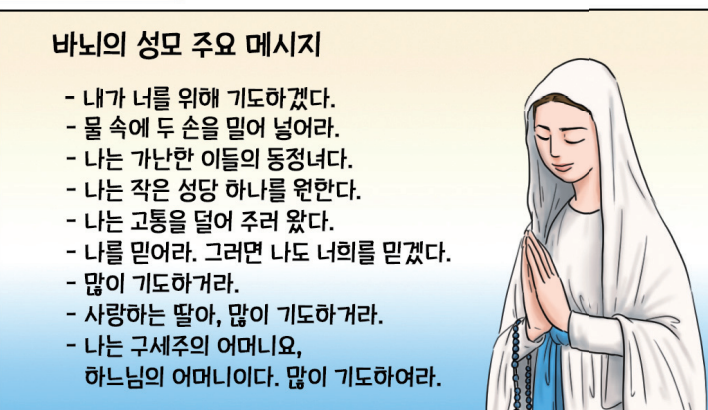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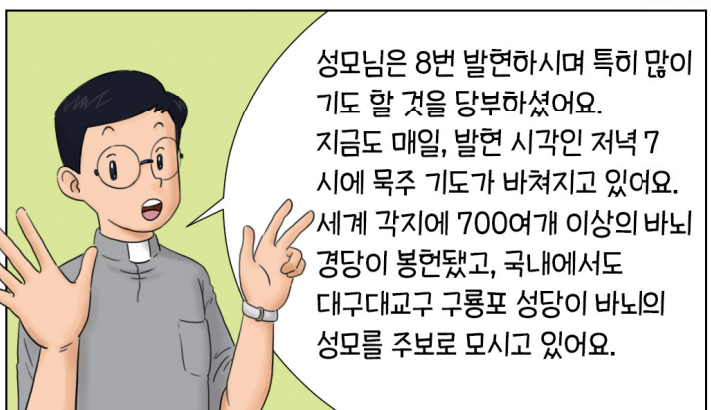


성모님은 매년 저녁 7시 무렵에 하얀 옷에 파란색 허리띠를 맨 모습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집 정원 전나무 위에 나타났어요.



성지의 샘은 순례자들에게 ‘치유의 샘’이 되었지만, 신학자들은 이 샘이 인류를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께로 일치시킴을 상징한다고 풀이하고 있어요. 아울러 이 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해요.

